



SBS 예능 프로그램 '불교 썰매' 논란

종교가 지나치게 경직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방송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 종교 고유의 신성성을 해친다면 창작의 자유로 보기 곤란하다.

웃음 주려고 "스님 조폭 닮았네요"

시청자게시판에 출연진 비판 의견 등 줄이어

지난해 12월 29일 방송된 SBS '이경규 김용만의 라인업(이하 라인업)'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라인업은 송년스페셜로 준비한 15회 방송을 '라인업, 산사에 가다'라는 제목으로 촬영했다.

"조폭(조직폭력배)을 닮았다"면서 "늪을 정리하고 업주 등의 액세서리로 외모를 치장하고 가리리"는 말을 했다. 또 다른 출연자는 불경이 잘 위치하지 않아 고민이라는 스님에게 "불경테이프를 늘 들고 다니면서 립스틱을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방송된 지 1주일여가 됐지만 불교계의 방송 모니터링이나 공식입장발표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사단법인 보리방송모니터회는 "방송 내용을 모니터링 하기는 했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라인업 방송의 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사찰이 배경으로 쓰이면서 한층 더 대중성을 확보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웃기 위주'의 방송 언어, 편집에 대한 불교계의 입장이 없다면 추후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주 감사의 김하복 총무실장은 "스님들에게서는 너그럽게 이해하고 계시지만 일부 신도들은 라인업 출연진에 실망한 것 같다"면서 "사찰을 알리는 좋은 기회였지만 지나치게 회화화된 일부 농담들이 여과 없이 방송된 점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무자년 한해 더욱 힘찬 정진을"

조계종 등 각 종단 시무식 열고 신년 다짐 밝혀

무자년 새해를 맞아 불교계 각 종단들이 1월 첫째 주 시무식을 열고 힘찬 한해를 다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에서 시무식을 열고 새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시간은 기다리면 지루하지만 지나고 나면 화살같이 빠른 것"이라며 "종무 교직자와 사부대중 모두 맑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서로 의논하며 원활하게 종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2008년도 종단 시무식 및 신년 하례회를 1월 3일 시간동 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운산 스님, 중앙종회의장 인공 스님, 중앙사정원장 월운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1월 3일 시무식을 개최한 조계종 중앙총무원장 및 산하단체 총사자들이 앞한 한해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신년사에서 "종단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모든 종도들이 합심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긍정하고 이해하며 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시무식에서는 보광선원 주지 보광 스님이 종단 발전기금을, 경기북부 총무원과 경북 총무원은 태안 기름유출 방제지원 성금을 전달했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총인원 무진 설립법에서 시무식 및 신년하례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회정 정사는 "종교와 지혜를 상징하는 무자년 새해에 종단 신하 모든 단체들이 지혜로써 더욱 풍요로운 한해를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신년사를 했다. 한국불교 여래종(총무원장 해인)도 1월 4일 총본산 육천 대약사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거행했다.

김주일·여수령 기자

'종교 정치세력화' 우려 목소리

보수 개신교계 총선 목표로 정당 창당 추진

보수 개신교계가 올해 4월 치러질 총선을 목표로 정당 창당을 추진해 '종교 정치세력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교도영성훈련원 전광훈 목사(서울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개신교인 20여 명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여전도회관에서 창당발기 준비비모임을 갖고, 1월 중으로 '가정 사랑실천당' 창당 발기인 회의를 여는데 이어 3월 중 지구당을 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창당 취지문에서 "사회 일각에서는 진보반미사상을 가진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 난동을 부리며, 사회를 혼란시키고, 국가를 존폐의 위기로 내몰았다"며 "국가 정체성 혼란과 사회적 불리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자 사랑실

천당을 창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신문 뉴스파워 기사에 따르면, 당초 창당 발기인에 포함됐던 조흥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와 김홍도 목사(금남교회) 등 일부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 창당 준비 과정이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개신교 내부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국교회언론회는 12월 31일 논평을 통해 "목회자들이 나서서 정치를 통해 사랑실천을 운운하는 것은 정당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이며, 교회의 사명을 곡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목회자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므로 인하여 더 이상 정치를 회화화(數化)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수령 기자

태고종, 중국과 문화교류 합의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이 중국 불교계와 공식적인 문화교류를 갖기로 합의했다.

태고종은 지난해 12월 26일 중국 베이징 중국국가종교사무국(국장 예사오원)에서 한중불교문화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불교의 영산재와 중국 범패교향합창단 '신주화악(新州和樂)'을 상호 교환 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태고종은 우선 올 상반기 중 두 차례 서울에서 중국 심전교향악단을 초청해 신주화와 공연을 태고종과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 중국불교협회 공동 주최로 연다. 이어 하반기에는 태고종 영산재보존회(회장 환우)가 두 차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를 시연한다.

'신주화악'은 중국불교음악과 서양교향악의 음악 특색을 결합시킨 대규모 교향악곡으로 이미 싱가포르 등의 동남아 순회공연에서 호평 받은바 있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원로 비구니 상륜 스님 원적

작년 12월 28일 법륜사사

조계종 원로 비구니 스님인 무아당(無我堂) 상륜(相倫) 스님(승가사회주·사진)이 12월 28일 오전 8시 용인 법륜사에서 입적했다. 법랍 60세, 세수 78세. 스님의 영결식은 12월 30일 용인 법륜사에서, 두레식은 예산 수덕사에서 엄수됐다.

상륜 스님은 1946년 풍동사에서 경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66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51년 양산 내원사, 1955년 수덕사 견성암에서 수행정진했고 이어 1971년 북한산 승가사 주지로 부임한 후 30여년간 중창불사와 포교 활동에 매진해 왔다. 또한 승가사 제일선원을 설립해 수행 가풍을 진

작시켰으며, 1985년 전국비구니회 부회장과 비구니 목련회 회장을 맡아 비구니 위상 제고에 진력했다. 1992년 BBS불교방송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여수령 기자

중단협, 1월 10일 울췌 이사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는 1월 1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올해 예산안과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한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선풍력이 빠르게 정착됩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광고국 02)2004-8213-7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총부지사: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055)355-7472, 울산지사: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충청지사: (043)732-5560, 광주지사: (062)268-1508, 전북지사: (063)910-5199, 영주지사: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7개월 5만원,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재) 대한불교진흥원 대원불교대학·대학원 서울/부산(일반인, 직장인 환영) 2008학년도 전학기 신입생 모집 [2년 / 4학기 · 주·야간]. 불교대학 최초 명상학과 개설 / 대학원 과정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개설 / 법사과정(3년제)신설. 2008학년도 입학생 전원에게 50% 장학 혜택이 주어집니다.